

익산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자격판정 변경

1일부터 연말까지 신규 신청 지역가입자 올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 불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격유무로 판정

익산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99명에게 1억233만8,000원(6월 말 기준)에 해당하는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했다. 기존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으로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을 판정하였으나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자격판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2018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청한 지역가입자는 2018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

며, 2018년 6월 건강보험료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유무로 판정한다. 또한 신규 신청한 직장가입자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여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판정을 한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자격확인방식'으로 판정방법을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2017년~18년 출생아 중에서 18년까지 지원신청한 자)는 최대 24개월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여 보건소 가족건강계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받으며,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아동수당 사전신청 홍보

행복도시 군산시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전신청 홍보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7월 현재 지원 대상 아동 1만3,000여명 중 1만814건이 접수돼 82.8%의 접수율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만 0세~만 5세(0~71개월) 아동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고군산군도 시내버스 연계 노선 신설 운행

군산시는 원도심의 주요 관광거점과 고군산군도를 연계해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월 6일부터 선유도 내부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근대역사박물관~비응도간 버스노선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97번 노선을 신설해 '근대역사박물관 ~ 동국사 ~ 군산상고 ~ 군산대 ~ 비응항' 구간을 운행하며, 원도심 방문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고군산군도를 좀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매시간 50분에 근대역사박물관을 출발해 비응항까지는 40분이 소요되며, 비응항에서 2층 시내버스로 환승을 연계하기 위해 운행시간을 조정했다. /군산=김정훈기자

99번(2층 버스) 노선은 선유도 내부 도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선유보전소까지 노선을 확대·운영하며, 97번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위해 매시간 40분에 비응항에서 출발하고 복편 노선은 매시간 20분에 선유보전소에서 출발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확대를 시행하게 됐다"며 "11월 말까지 운행 상황을 검토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수경시설, 폭염 속 지역주민들에게 호응

수송근린공원 바닥분수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운영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군산시의 수경시설(바닥분수, 분수대)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운영에 들어간 수송근린공원 바닥분수는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수송근린공원 바닥분수는 현재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운영해 20분 가동, 20분 정지를 반복하며 물줄기의 양과 높이가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는 등 시민들에게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송공원 물놀이형 바닥분수는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염소 소독과 월 2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4가지 수질기준 항목에 맞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바닥분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안내판을 게시할 예정이며 여름방학시기에 맞춰 분수 가동시간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송근린공원 바닥분수뿐만 아니라 금암메세스타아파트와 미룡주공단지아파트 사이의 미제천 친수



지난달 9일 운영에 들어간 수송근린공원 바닥분수는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공간에 분수대가 운영돼 이용객만 약 6,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인근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지난달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운영하며, 안전요원 배치 등 주 이용객인 유치원 및 초·중·고생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산예술의전당 은파호수공원, 미원지구(미원광장) 등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경시설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비응공원의 경관

형 수경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군산시 곳곳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한편 수송공원은 정라북도와 군산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2018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별별마당·미당상설' 공연장으로 활용돼, 28일 하에서 듣는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주말 저녁 시민들의 여름밤을 특별하게 채워줄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지방세 부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익산시가 2014년 이후 부과세·감면 받은 법인 부동산에 대해 사후점검 차원에서 오는 11월말까지 일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후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매각한 부동산을 찾아내 과세예고를 거쳐 오는 12월쯤 추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부동산 취득 시 부과세·감면받은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1,569건에 해당되며, 조사한을 편성 1차 과세자료 조화와 각종 대장조화를 거쳐 타용도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2차 현지확인을 병행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은 3년, 농업법인은 1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직접사용일로부터 2년 미만의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으며, 추징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부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박철웅 익산시 부시장, 2018 전국체전 주경기장 현장행진

익산시 박철웅 부시장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 공사현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부시장은 현장소장과 감독단장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마비지공사가 현장인 주 경기장과 삼계체육관

종목별 경기장 현장을 점검했다. 박철웅 부시장은 현장소장에게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하며 "비철전 개회식엔 육상 사관대회를 바탕으로 남은기간 마비지 상황을 완벽히 보완하여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7월초 육상경기장 제2종 공인 심사를 마치고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국체전 사전대회로 제39회 전국시도대학 육상경기대회와 제2회 전국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대회기간 발전된 마비지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개최 전까지 보완하여 완벽한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가뭄피해 농가 긴급 살수차 지원

익산시가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의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긴급 살수차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1일 성당면 와초리와 갈신리 일원 2ha(6,000평)의 논에 긴급 살수차 6대를 지원해 가뭄해소를 위한 물을 공급했다. 이번에 물을 공급받은 농지는 천수답(天水畓)으로 벼가 임태하는 시기에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모자라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아예 시는 당분간 비예보가 없는 가운데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가뭄으로 인해 고령관고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살수차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철웅 부시장은 "이번 긴급 살수차 지원으로 가뭄피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